



# MACRO BRIEFING

## 월간 평가: 변화의 시대 - 주식시장의 환경 변화를 시사하는 많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November 2018

### 전세계 5대 주요 현황

-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석을 확보했지만 공화당 또한 상원의석을 늘리면서 양당 모두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승리하면서 2016년부터 공화당이 독식했던 상하 양원에 대한 통제권을 중식시켰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다양한 사법적 심사를 통해 상원과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고 일부 주요 위원회에서 의장직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영국과 유럽연합**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기간에 합의했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문서에 향후 무역협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향후 몇 개월 안에 구체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서로 상반되는 이유를 내세워 의회에서 합의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는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발의 정족수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 ▶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주요 석유 수입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 유예를 적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수요 둔화와 공급 증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IEA와 OPEC 모두 내년 1분기 공급 초과를 경고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이 월말 무렵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면서 유가 하락에 추가적인 압박 요인이 되었습니다.
- ▶ **글로벌 주식시장**이 재조정 과정을 겪는 또 다른 징후로 기술주가 급락했고 고수의 속성을 지닌 통신, 유틸리티, 부동산 업종이 선전했으며 저변동성 종목들도 월초 급락 시점을 잘 버텼습니다. 이머징마켓 주식시장은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선진국보다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유럽 주식시장은 미국보다 부진한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자산군에서는 원자재 중에서 특히 유가가 크게 하락한 반면, 국채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 ▶ **미-중 무역분쟁**은 월말 무렵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이후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예정되었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3개월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월초 미 행정부는 양국간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Fig.1. Regional Equity Indices Performance, U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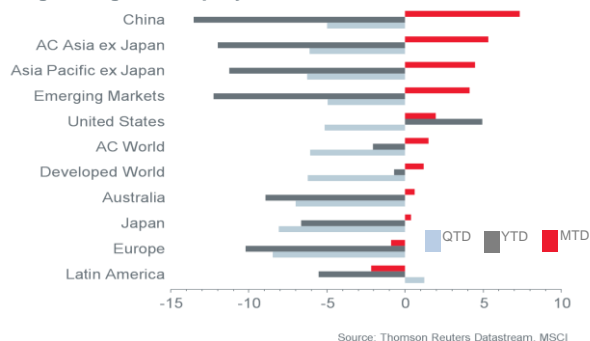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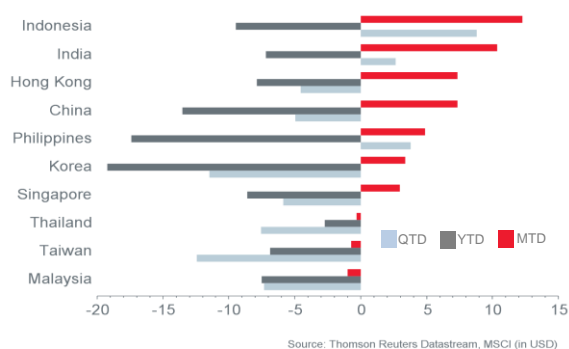


Fig.2. Asia Equity Indices Performance, US\$ %



### 주식시장

- ▶ **글로벌 주식시장**은 또 한차례 심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접어들면서 전세계 거의 모든 시장이 급락했고,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금리가 중립금리를 소폭 밀돌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미-중 무역분쟁 해결 조짐이 나타나면서 마지막 거래일에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 ▶ **이머징마켓 주식시장**은 1월 이후 가장 양호한 성과를 보이면서 **선진국 주식시장**을 앞서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요인이 이러한 초과성과를 견인했습니다. 미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고, 미국이 중국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추가 관세 부과가 미-중 무역협상 기간 동안 유예되었으며, 유가가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다른 이머징마켓 지역보다 다소 선전했고, 3분기와 10월에 급락했던 터키와 남아공의 반등에 힘입은 EMEA 지역이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리라화 가치 급등이 터키에 호재로 작용했고, 남아공에서는 건조한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식시장을 이끌었습니다.

- ▶ MSCI 아시아(일본 제외) 지수는 5.2% 오르면서 호주 주식시장 부진이 영향을 미친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지수보다 0.5% 가량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6.3% 상승하며 크게 올랐지만, 여전히 연초 이후 14%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홍콩 주식시장은 거의 8%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한국 주식시장은 10월 급락을 다소 만회하며 4.7% 상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13% 상승하면서 이번 달에도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통화도 달러화 대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 ▶ 미국의 FAANG 주식(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알파벳))이 고점대비 20% 하락으로 정의되는 약세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내부 갈등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애플은 부품 주문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주들이 월말 무렵 반등하면서 손실을 다소 만회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애플을 넘어섰습니다.
- ▶ 다른 지역에서는 인도 주식시장이 10% 반등하면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힘입어 6% 오르며 강세를 보인 루피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 주식시장이 10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1% 하락 마감했고, 폴란드와 헝가리가 9% 상승한 중유럽 주식시장이 EMEA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서유럽 주식시장 중에서는 독일 주식시장이 경제지표 부진으로 약세를 나타냈고, 영국 주식시장 또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Fig 3. Bond Indices Performance, US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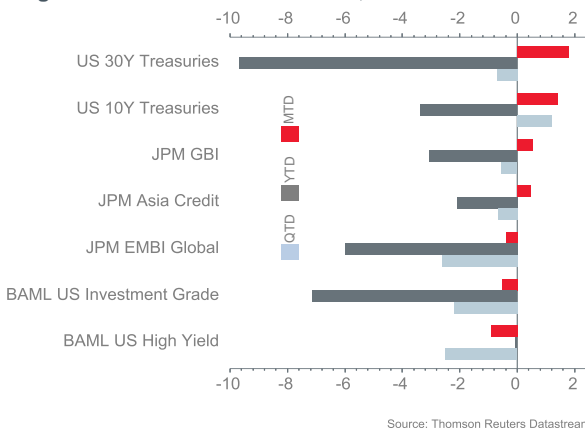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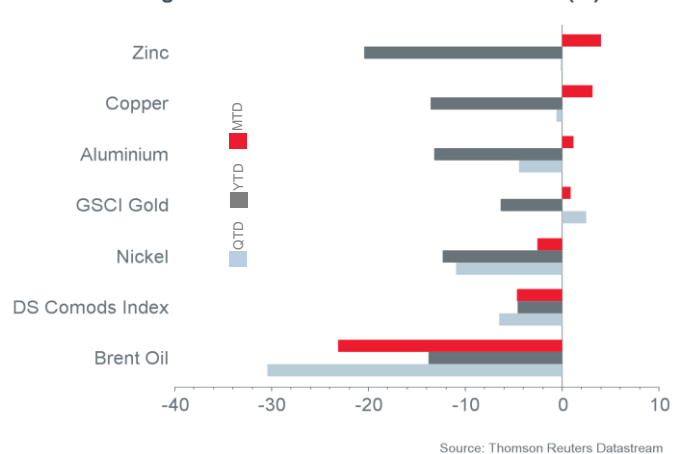


Fig 4. Commodities Performance in USD (%)



## 채권

- ▶ 이벤트가 넘쳐난 지난 11월에 투자심리가 널뛰기 양상을 보였고, 글로벌 금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 ▶ 미국의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시장 지표 발표로 미 연준의 금리정상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수익률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범위를 낮추어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 하락, 주식시장 조정, 경제지표 약세 조정, 엇갈린 양상을 보인 미-중 무역협상 모두 글로벌 전망 및 위험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 ▶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16bp 떨어지면서 2.99%로 마감했고, 10년물과 2년물 사이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8bp로 축소되면서 미 국채 수익률 곡선이 평평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 ▶ 다른 핵심국 금리와 아시아 국내 금리도 미 연준의 금리상승 기대가 낮아지는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쌍둥이 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의 글로벌 자금조달 여건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개월 동안 약세를 보였던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국내채권 및 통화시장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 ▶ 미 달러화 표시 아시아 채권시장의 경우, 미국의 무위험 금리가 낮아지면서 성과 호조세가 나타났지만, 채권 발행량 증가와 신중한 투자심리가 결부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투자등급미만 채권은 강한 스프레드 확대 압력에 영향을 받으면서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 원자재

- ▶ 유가는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미국 이외 지역의 산유량 증대에 따른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20%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OPEC과 IEA도 2019년 상반기에 공급 초과를 경고했고, 미국이 이란산 석유 수입 희망 국가들에게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는 소식이 시장 또한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러시아가 산유량 감축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다소 반등했습니다.
- ▶ 철광석 가격은 중국 철강업체의 원재료 수입이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발표에 폭락하면서 마침내 철강 가격을 따라가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통상적인 겨울철 생산중단 시기를 앞두고도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니켈과 아연 가격 또한 중국의 제련업체의 수요 둔화 전망에 하락했습니다.
- ▶ 다른 원자재 상품 중에서 구리 가격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 가속화 소식에 올랐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완화적 발언에 따른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금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 구리와 아연 가격 모두 크게 떨어진 상황이지만 다른 금속 가격은 다소 올랐고, 발틱운임지수(BDI)는 마지막 주에 상승하면서 6주 연속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 통화

- 미 달러화의 11월 성과는 엇갈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뉴질랜드 달러화와 호주 달러화 모두 미 달러화를 각각 5%와 3% 앞서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 크로네화와 캐나다 달러화는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는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와 브렉시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미 달러화 대비 포함 수준으로 11월을 마감했습니다. 이들 두 통화의 변동성은 시장 우려가 커지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아시아 통화들은 미 달러화 대비 선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와 인도 루피화 모두 6%를 웃도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금리인상(올해 누적 175bp)을 또 다시 단행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외에 올해 남은 기간에 계획했던 채권 발행을 취소하면서 재정적자가 당초 목표했던 2%보다 낮은 1.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에서는 중앙은행과 정부간의 마찰 양상이 진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 중국 위안화는 목표 범위 내에서 거래되었고 미 달러화 대비 다소 강세를 보이며 11월을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었고 G20 회의를 앞두고 양국간의 긴장이 이어지면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국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25% 관세를 유예하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확대하기로 하면서 협상을 재개했다는 뉴스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터키 리라화 가치가 미 달러화 대비 7% 상승했습니다. 10월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통화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0월에 선전했던 아르헨티나 페소화와 브라질 헤알화는 각각 5%와 4% 가량 떨어졌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대선 승리로 인한 흥분이 가라앉고 시장에서 신임 대통령의 정책을 기대하는 가운데 헤알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 멕시코 페소화와 관련한 많은 뉴스가 쏟아졌지만 미 달러화 대비 포함 수준에서 11월을 마감했습니다. 새 행정부의 신공항 건설 중단 결정이 시장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부 은행 수수료를 폐지하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뉴스에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Fig 5. Currencies Performance versus US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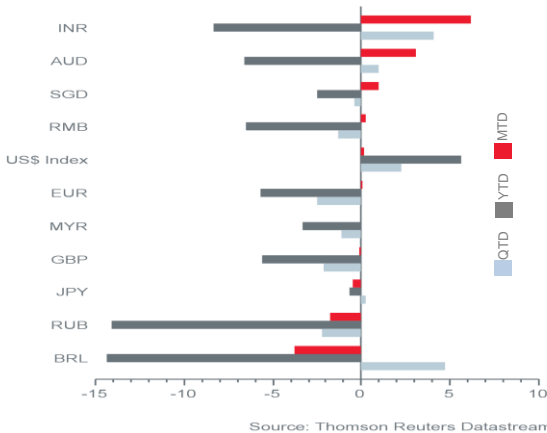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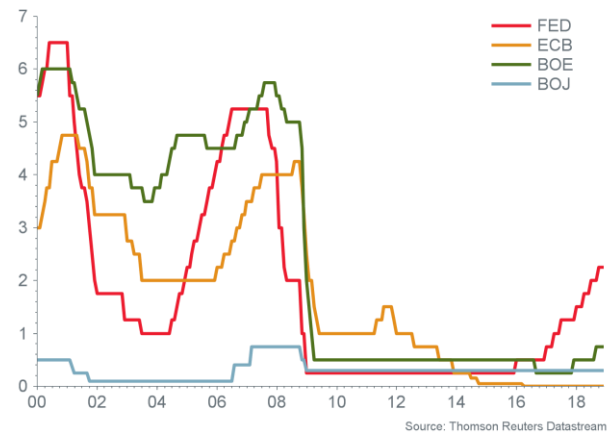


Fig 6. Central Banks Interest Rate (%)



## 경제

- 미국에서는 더 많은 경제지표가 견조한 경제상황을 시사했습니다. 3분기 임금이 이번 경기사이클에서 최고 수준을 경신했고 노동시장은 계속 빠른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9월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모습을 유지했고 미 연준의 목표 범위에 들었으며 개인소비지출이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0월에는 소비자신뢰지수가 또 다시 고점을 경신했고 일자리도 25만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양상과는 달리 ISM 제조업지수는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신규주문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인데 달러화 강세 및 수출 관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2~2.25%에서 동결했고, 월말 무렵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전년대비 1.2%를 기록한 일본의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의 3%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날씨 및 지진 관련 가동 중단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2%에 그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독일 경제는 3분기에 소폭 위축되었으나 4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예산안을 유럽연합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라는 요구를 이탈리아가 거부하면서 12월에 이어 2019년에도 유럽연합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소비자신뢰지수는 96에서 92로 떨어졌습니다.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유로존의 11월 구매관리자지수는 약세를 나타냈고 종합지수는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3분기 GDP 성장률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 중국의 구매관리자지수는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기준선인 50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6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중국 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10월 소매판매 또한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둔화되었습니다. 산업생산과 투자지출(특히 인프라 부문)이 소폭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분기 멕시코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9%, 전년 대비 2.6%로 상승했지만, 신용항 프로젝트 취소 영향이 크게 부각되면서 중앙은행은 페소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8%로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로 1년 만에 25bp 인상하면서 시장 전망에 부합했습니다. 인도 경제는 3분기에 완만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 전년 대비 8.2% 성장했던 실질 GDP가 7.1%로 둔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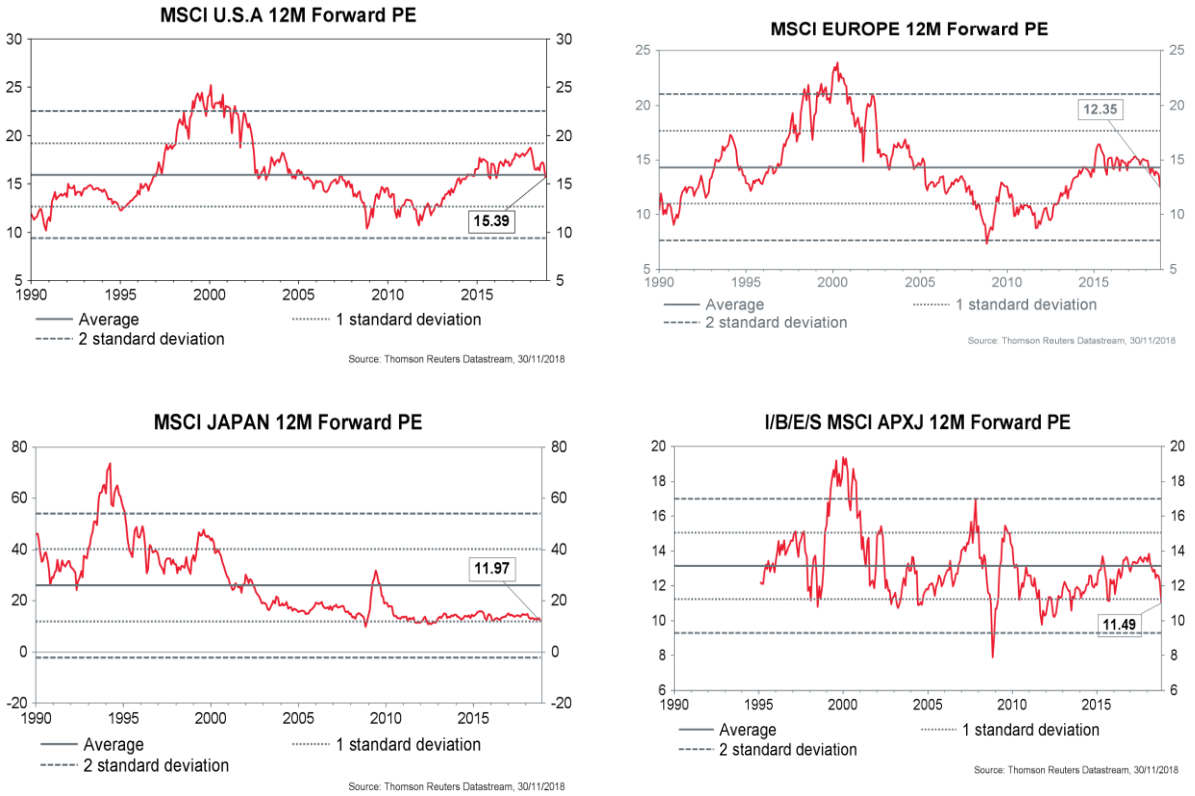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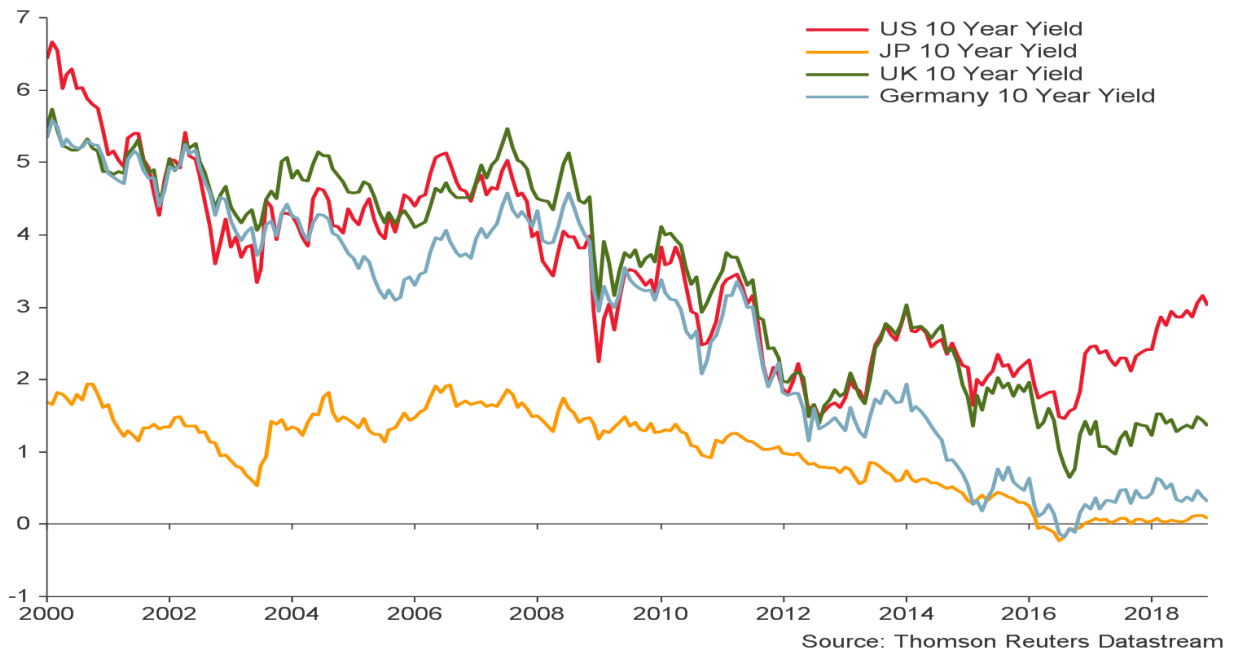


Fig 8. Key Bond Yields (%)



Source: Eastspring Investments. Chart data from Thomson Reuters DataStream as at 31 October 2018. For representative indices and acronym details please refer to notes in the appendix.



## MSCI monthly, quarterly and year-to-date data

	Nov	YTD	QTD	Oct	Q3	Q2	Q1	2017
<b>World</b>	1.5	-2.1	-6.1	-7.5	4.4	0.7	-0.8	24.6
<b>Developed World</b>	1.2	-0.7	-6.2	-7.3	5.1	1.9	-1.2	23.1
<b>United States</b>	1.9	5.0	-5.1	-6.9	7.5	3.5	-0.6	21.9
<b>Europe</b>	-0.9	-10.2	-8.5	-7.6	0.8	-0.9	-1.9	26.2
<b>Japan</b>	0.4	-6.3	-8.1	-8.5	3.8	-2.8	1.0	24.4
<b>Emerging Markets</b>	4.1	-12.0	-4.9	-8.7	-0.9	-7.9	1.5	37.8
<b>Asia Pac Ex Japan</b>	4.5	-11.3	-6.3	-10.3	-1.3	-3.5	-0.6	37.3
<b>Asia Ex Japan</b>	5.3	-11.8	-6.1	-10.8	-1.5	-5.3	0.7	42.1
<b>Latin America</b>	-2.2	-5.5	1.2	3.5	4.9	-17.7	8.1	24.2
<b>Brazil</b>	-2.0	1.6	15.5	17.8	6.2	-26.4	12.5	24.5
<b>EMEA</b>	4.5	-14.3	-2.5	-6.7	-1.4	-10.0	-0.9	25.2
	Nov	YTD	QTD	Oct	Q3	Q2	Q1	2017
<b>Australia</b>	0.6	-8.9	-7.0	-7.6	-0.9	5.3	-6.1	20.2
<b>New Zealand</b>	3.8	-1.7	-4.8	-8.2	2.6	5.8	-4.9	12.7
<b>Hong Kong</b>	7.4	-7.9	-4.6	-11.1	-0.9	-1.2	-1.4	36.2
<b>China</b>	7.3	-13.5	-5.0	-11.5	-7.4	-3.4	1.8	54.3
<b>Korea</b>	3.4	-19.2	-11.5	-14.3	0.7	-9.1	-0.4	47.8
<b>Taiwan</b>	-0.7	-6.9	-12.5	-11.8	7.2	-6.1	5.7	28.5
<b>Thailand</b>	-0.3	-2.5	-7.5	-7.3	13.7	-14.9	9.0	34.9
<b>Malaysia</b>	-1.0	-7.5	-7.3	-6.4	3.8	-11.4	8.5	25.1
<b>Singapore</b>	3.0	-8.6	-5.9	-8.6	2.2	-7.5	2.8	35.6
<b>Indonesia</b>	12.3	-9.5	8.8	-3.1	2.0	-12.2	-7.1	24.8
<b>India</b>	10.4	-7.2	2.7	-7.0	-2.3	-0.6	-7.0	38.8
<b>Philippines</b>	4.9	-17.4	3.8	-1.0	1.1	-11.1	-11.4	25.2
	Nov	YTD	QTD	Oct	Q3	Q2	Q1	2017
<b>Mexico</b>	-4.8	-18.0	-21.3	-17.4	7.0	-3.5	0.9	16.3
<b>Chile</b>	3.3	-15.9	-5.3	-8.3	-1.9	-11.0	1.6	43.6
<b>Hungary</b>	8.8	-6.0	6.0	-2.6	4.7	-14.4	-1.0	39.9
<b>Poland</b>	7.6	-12.6	-3.1	-10.0	11.1	-11.6	-8.2	55.3
<b>Czech Republic</b>	2.1	0.8	-5.9	-7.8	4.0	-3.2	6.4	38.9
<b>Russia</b>	-1.2	3.7	-5.5	-4.4	6.6	-5.8	9.4	6.1
<b>Turkey</b>	13.1	-37.9	10.5	-2.3	-20.5	-25.7	-4.8	39.1
<b>South Africa</b>	8.8	-23.8	-3.1	-10.9	-7.2	-11.8	-4.0	36.8
<b>Qatar</b>	2.0	31.1	9.5	7.4	12.8	3.5	2.5	-11.5
<b>Saudi Arabia</b>	-3.2	16.7	-2.7	0.5	-2.9	9.3	13.1	7.6
<b>United Kingdom</b>	-1.7	-10.7	-8.3	-6.8	-1.6	3.0	-3.9	22.4
<b>Germany</b>	-2.0	-16.9	-10.3	-8.4	-0.6	-3.4	-3.5	28.5
<b>France</b>	-1.8	-7.7	-11.0	-9.4	2.9	0.3	0.4	29.9
<b>Netherlands</b>	2.8	-7.1	-5.2	-7.8	-1.4	-1.6	1.0	32.7
<b>Italy</b>	0.8	-14.0	-8.6	-9.4	-4.3	-6.8	5.4	29.6
<b>Spain</b>	1.9	-12.4	-5.0	-6.7	-2.3	-4.1	-1.6	27.7
<b>Greece</b>	-3.3	-33.1	-11.2	-8.2	-17.6	-2.0	-6.7	29.1

## KEY TERMS

CA	Current Account
CBR	Central Bank of Russia
COPOM	Central Bank of Brazil
CPI	Consumer Price Index
DM	Developed Markets
ECI	Employment Cost Index
EM	Emerging Markets
EM Currencies	MSCI Emerging Markets Currency Index
EM Equities	MSCI Emerging Markets Index
EM Local Currency Bonds	JP Morgan Emerging Local Currency Bond Index
EM USD Bonds	JP Morgan Emerging Market Bond Index
EMU	European Monetary Union
EU	European Union
Fed	The Federal Reserve Board of the United States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GDP	Gross Domestic Product
Global Developed Equities	MSCI Developed Markets Index
Global Equities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Global Government Bonds	Citigroup World Government Bond Index
IP	Industrial Production
M2	M2 Money
mom	Month on month
PBoC	Peoples Bank of China
qoq	Quarter on quarter
Repo	Repossession
SDRs	Special Drawing Rights
SELIC	Sistema Especial de Liquidação e CU.S.todia (SELIC) (Special Clearance and Escrow System)
Tankan	Japan Large Business Sentiment Survey
TSF	Total Social Financing
UK	United Kingdom
y/y	Year on year

## REPRESENTATIVE INDICIES

Aluminum	S&P GSCI Aluminum Index
Asia Local Bond (ALBI)	HSBC Asia Local Bond Index
Brent Oil	Cash settlement price for the InterContinental Exchange (ICE) Brent Future based on ICE Futures Brent index
Commodities	Datastream Commodities Index
Copper	S&P GSCI Copper Index
EMU 10 Year	Datastream EMU 10 Year
Global Emerging Bond	JPM Global Emerging Bond Index
Gold	S&P GSCI Gold Index
Japan 10 Year	Datastream Japan 10 Year
JACI	JP Morgan Asia Credit Index
MSCI Dev World	MSCI Developed Markets Index
MSCI EM	MSCI Emerging Markets Index
MSCI Europe	MSCI Europe Index
MSCI Japan	MSCI Japan Index
MSCI Latam	MSCI Latin America Index
MSCI Russia	MSCI Russia Index
MSCI U.S.	MSCI U.S. Index
MSCI World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Steel (HRC)	TSI Hot Rolled Coil Index
UK 10 Year	Datastream UK 10 Year
U.S. 10 Year Treasuries	Datastream U.S. 10 Year Treasuries
U.S. 30 Year Treasuries	Datastream U.S. 30 Year Treasuries
U.S. High Yield	BAML U.S. High Yield Constrained II
U.S. Investment Grade	BAML Corporate Master
DXY	U.S. Dollar Index
Zinc	S&P GSCI Zinc Index



- 본 자료는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 (아시아운용본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 계열사에서 공유하는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며,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 전망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 시장 예측에 대한 자료는 단지 참고자료로서 작성되었고 당사는 예측에 따른 고객의 행위에 대한 직, 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원문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번역과정에서 오류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은 영국 프루덴셜 그룹의 계열사로, 미국에 본사를 둔 프루덴셜 파이낸셜과 아무런 제휴관계가 없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에 대한 확실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동 가능 합니다.